

성령 충만한 성도의 표징

성경말씀: 엡5:18-33

늘 접하는 말, 성령 충만(18), 지난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했는가?

1. 명령은 2인칭 복수형이다. 2. 이것은 현재 형이다. 3. 원래는 수동형이다(지배를 받는다).
4. 지혜로운 자(15),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17)의 특징: 성령 충만, 성화, 복음 선포/전도에 필수적이다

제목: <성령 충만한 성도의 표징>

1. 기쁨(19)

언제 노래하는가? 기쁠 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온도계와 다르다.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내적 확신에서 나온다(빌4:11-13)

술 먹으면 기쁨이 생긴다(18). 그것은 무절제의 기쁨(과도함), 성령 충만하면 절제의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일하면 즐겁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행2:46-47). 청장년부, 기도회

루터, 웨슬리, 무디와 생키의 시대: 찬송이 흘러넘침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쁨, 믿음(히11:6; 롬8:28), 소망, 아침, 점심, 저녁에 기쁨, 믿음, 소망, 평안

2. 감사(20)

감사: '고맙게 여긴다.' 누가 하는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 주변 사람들 덕택에 내가 존재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김정은

No),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 사람(약1:17)

이런 사람은 마리아의 옥합 향유처럼 향기를 풍긴다(요12장).

우리는 주로 무슨 때가 되면 감사의 선물을 돌린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한다(20).

고통 중에, 병 중에, 직장을 잃을 때에, 상을 당했을 때에, 결혼하지 못할 때에, 실망할 때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불평할 때 마귀가 들어온다. 어려워도 주님께 불평하지 않는다.

감사(gratitude)는 은혜(grace)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

우리의 구원을 보라. 100% 하나님의 일,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 있다. 감사하는가?

3. 복종(21)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서로에게 복종하게 된다. 남의 말(간청)을 잘 들어 준다(약3:17). 권면을 받는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약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질서의 붕괴

이유: 제자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이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하는 식이 아니다.

복종은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다.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한다.

권위를 집행할 때 주님이 보여 주신 예를 따라야 한다.

요13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주와 선생인 내가 먼저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14절).

4. 성령 충만한 부부(22-33)

복종의 예: 남편과 아내(엡5:21-33), 부모와 자녀(6:1-4), 주인과 종(6:5-9).

권위의 질서, 항상 아내 다음에 남편, 자녀 다음에 부모, 종들 다음에 주인이다(주장하지 마라).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징표: 부부의 성령 충만(18이 22로 연결되어야 한다), 가정과 교회가 산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쓰고 있다. 여자는 노예처럼 복종하고 남편은 독재자 No!

이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32절).

1.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22-24절). 3절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24). 맞는가? 내 것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뢰가 있다.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독재가 아니다(24). 질서의 문제 단 양심과 종교에 관한 한 남편이 지배할 수 없다. 도둑질, 부정직, 사기, 믿음, 교회 등 그래서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자매님들의 성령 충만 날이 갈수록 내 아내를 보면 이것이 확실하다.

2.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25-32절). 8절
남편에게 주는 내용이 더 길다. 남편이 해야 할 것이 더 많음을 보여 준다.
바울은 남편에게 더 큰 기준을 주었다(25절).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32).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3. 결혼의 이유: a.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창1:28), b. 하나님이 주신 기본 욕구를 질서 있게 채우도록(고전7:1-3), c. 영적인 이유: 복종과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32)
4.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 충만하면
 - a. 그는 희생한다(5:25). 직장 다닌다고 돈 번다고 유세하지 않는다.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죽도록 부지런히 일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희생하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한다.
아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도록 희생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우리 학생들, 설거지, 빨래, 청소 등).
 - b. 그는 성별한다(5:26-27).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다. 아내만을 여자로 알아야 한다. 아내를 여자로 대우하라(잠5:18-19).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26).
남편도 이같이 말씀으로 아내를,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육신의 힘이 아니라). 참아야 한다.
더 좋은 아내로 만드는 것도 남편의 책임
그래서 결혼 생활이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한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듯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정이다.
 - c. 성령 충만하면 둘이 서로를 살린다(5:28-29).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상대방에게 잘하면 내게 잘하는 것이다(28).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야 한다.
아이들이 배운다.
창2:23,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
그 결과 29절을 행한다. 소중히 여긴다.
 - d.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30-33절).
남편과 아내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긴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돈독한 부부 관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악한 것을 의논하면 안 된다(행5).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주님의 일을 도모해야 하다(행18).
서로를 도와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결론

1.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있다(믿음, 소망, 평안). 감사가 있다. 복종이 있다.
2. 성령 충만한 결혼 생활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3. 남편은 아내 사랑(33), 아내는 남편 존중(33)